

◆ 북미

- 캐나다, 수해관련 지급보험금 증가
- 미국 6위 손해보험사 Liberty Mutual, 62억 달러에 Safeco 인수

◆ 유럽

- 영국 2위 은행인 RBS, 보험사업 부문을 매각 발표
- ABI, 영국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자가 600백만 명을 돌파

◆ 일본

- 손해보험재판과 다이이치생명, 자본 상호 출자 추진
- 일본 하트포드생명, 퇴직자 대상 변액종신보험 판매 시작

◆ 중국

- 보험회사, 자산운용형 보험판매 인기몰이
- 사상 최대 보험중개회사 M&A 성공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캐나다, 수해관련 지급보험금 증가

- 캐나다에서는 수해(water damage)관련 보험금 청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 보험국(Insurance Bureau of Canada)의 Jack Chadirdjian에 의하면 2005~2006년 사이 퀘벡 지역에서만 수해와 관련한 보험금으로 5억 달러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지급보험금 11억 달러의 45%에 해당함.
- 2001~2002년 수해관련 보험금 비중이 21%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임.
- Chadirdjian은 최근의 수해는 단순히 비가 많이 내려서가 아니라 짧은 시간동안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집중호우는 기후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 수해는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며, 집중호우로 인해 하수도가 역류하거나 지하층이 침수되는 피해가 나타남.
- 또한 이러한 수해 문제는 폭우에 취약한 낡은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는 몬트리올 지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함.
- 캐나다에서 가계종합보험은 일반적으로 수해를 담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해를 담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50달러 정도의 추가보험료를 지불하고 특약에 가입해야함.

□ 미국 6위 손해보험사 Liberty Mutual, 62억 달러에 Safeco 인수

- 미국 손해보험사 Liberty Mutual Group은 지난 수요일 Safeco사를 62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결정함.
- Liberty Mutual은 보험계약자에 의해 소유된 상호보험사로 작년 한해 202억 달러의 보험을 판매하며 손해보험업계 6위를 기록하였으며, Safeco는 59억 달러의 판매를 기록한 회사임.
- 양 사는 Liberty Mutual이 Safeco사 주식을 51%의 프리미엄을 얹어 매입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며, 이번 거래는 감독당국과 Safeco사 주주들의 최종 승인을 거쳐 3분기 말쯤 완료될 것으로 보임.
- 이날 Safeco의 주가는 46% 상승한 65.94달러를 기록하며 Liberty Mutual의 인수제안 가격인 68.25달러에 근접함.
- Liberty Mutual과 Safeco는 주요 판매 시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인수거래 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관계자는 전망함.
- Liberty Mutual사는 개인보험과 함께 주로 대기업에 대한 상업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Safeco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대한 상업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Liberty Mutual은 동부, Safeco는 서부를 중심으로 영업 중임.
- Liberty Mutual Group의 CEO는 Safeco를 인수함으로써 Liberty Mutual Group의 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함.
- 그러나 신용평가기관인 S&P는 Safeco의 인수가 Liberty Mutual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함.
- S&P의 애널리스트 Alain Karaoglan은 Liberty Mutual의 이번 Safeco인수가 미국내 사업을 확장하고 사업범위를 다양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으나 Liberty Mutual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냄.

(Associated Press, 4/23)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영국 2위 은행인 RBS, 보험사업 부문을 매각 발표

- RBS(Royal Bank of Scotland)는 ABN Amro사 인수 실패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후수익에서 43억 파운드가 결손보고 되었음을 발표함.
- 이번 손실에 따른 신용경색*(credit crunch) 위기로 인해 RBS 경영진들은 대규모 신주 발행을 통해 이를 메우려하고 있음.
- * 신용경색(credit crunch) :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존의 금리조건으로는 대출을 받거나 다른 종류의 신용을 얻는 게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 같은 상황은 주로 대출기관이 리스크가 갑자기 커졌다고 생각하거나, 신용통제가 갑자기 가해졌거나 통화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생기는 현상임.
- 주주들은 이날 주주할당 방식(Right issues)으로 120억 파운드(약 237억 달러)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겠다는 언론 보도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임.
- 또한 RBS는 그룹 산하의 보험사업 부문을 매각하여 50억 파운드의 유동성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더함.
-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RBS는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에 있어서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신규사업도 강화됨에 따라 전년도 영업이익은 683백만 파운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함.
- 그러나, 현재 그룹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본금 수준이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면, RBS의 전체 혹은 일부를 매각하는 것에 동의, 소규모 자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톰 맥클립(Tom Mckillop) 회장은 현재 금융서비스 산업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시기라며, ABN Amro사 인수 및 시기선택에 있어 경영진의 과오를 인정하지만, 현재 경영진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경영진에 대한 계속적인 신뢰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함.

(Insurance Times, 4/22)

□ ABI, 영국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자가 600백만 명을 돌파

- 최근 ABI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Private Medical Insurance) 가입에 따른 보장 대상자 수가 6백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기업이나 개인으로 가입한 민영의료보험 보장 대상자는 6,004,000명이며, HTA(Healthcare Trust Arrangements)의 대상자 수도 1,136,000명으로 나타나 영국 민영보험시장의 해당 대상자는 총 7,140,000명으로 조사되었음.
- 이는 2006년 5,879,000명에 비해 2.13% 성장한 것이며, 이 중 기업보험이 3.65% 성장한 4,341,000명을 기록한 반면, 개인보험에서는 1.66% 감소한 1,663,000명으로 집계되었음.
- 또한 2007년 HTA에 보장 대상자 수는 1,136,000으로 2006년 1,021,000에 비해 11.2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민영의료보험(PMI)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고객들이 보다 다양한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된 고객지침서를 발간하기도 하였음.
- ABI의 담당자인 닉 스타링(Nick Starling)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의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앞으로도 PMI가 고객의 니즈에 따라 차별화된 치료와 의료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또한 근로자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 후 회사의 복귀도 이전보다 빠른 시기에 가능하게 됨으로써, 회사의 경영 효율적인 측면에서 기업정책으로 보다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

	가입자 수 (천명)	PMI 적용대상자 수 (천명)	총 수입보험료 (백만 파운드)	총 지급보험금 (백만 파운드)
2002	3,406	6,191	2,710	2,136
2003	3,355	6,033	2,815	2,203
2004	3,274	5,820	2,855	2,188
2005	3,266	5,820	2,942	2,255
2006	3,375	5,879	3,071	2,376
2007	3,401	6,004	3,241	2,501

(ABI Newsrelease , 4/23)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손해보험재팬과 다이이치생명, 자본 상호 출자 추진

- 손해보험재팬(SOMPO Japan Insurance)과 다이이치(第一)생명보험은 24일, 상대방 자회사에 대해 상호 출자하기로 결정함.
- 양사는 다이이치생명의 방카슈랑스 전문 자회사인 「다이이치 프런티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재팬의 통신판매 전문 자회사인 「손해보험재팬 DIY 생명보험」에 각각 10% 규모로 출자할 예정임.
- 이는 2000년 8월 포괄적 업무 제휴 추진의 일환이며 상대방 자회사에 대한 상호 출자를 통해 제휴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임.
- 다이이치 프런티어 생명보험은 9월에 500억엔의 증자를 계획하고 있고, 그 중 손해보험재팬이 100억엔 정도를 출자할 예정이며 다이이치생명은 손해보험재팬DIY생명에 10억엔 정도 출자할 계획임.
- 다이이치생명은 손해보험재팬에 4.14%(2007년 3월말)를 출자하고 있음.
- 손해보험재팬은 지방은행이나 신용금고를 중심으로 한 친밀 금융기관을 다이이치프런티어 생명에 소개하는 등 이번 상호 출자를 계기로 업무제휴 영역도 확대할 계획임.
- 판매 제휴가 실현되면 판매 관리 등의 사무대행도 실시되며 손해보험재팬은 다이이치프런티어생명으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을 예정임.
- 손해보험재팬은 변액연금을 취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제휴확대로 다이이치프런티어생명의 변액연금을 주거래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전후(戰後)세대의 대량 퇴직으로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변액연금 취급을 희망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니즈에 대비함.
- 한편, 보험상품의 직접판매를 검토해 오던 다이이치생명은 손해보험재팬 DIY생명으로부터 직접판매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게 됨.

(FujiSankei Busines I, 4/25)

□ 일본 하트포드생명, 퇴직자 대상 변액종신보험 판매 시작

- 미국계 생명보험회사로 변액연금을 주로 취급하는 하트포드생명보험은 21일 변액종신보험을 취급하기로 결정함.
- 하트포드생명보험은 지금까지 개인연금에 특화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였지만 고령화의 진전 등 마켓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상품개발 전략을 변경한 것임.
- 하트포드생명보험은 막대한 개인금융자산을 보유한 퇴직자 층을 위해 변액종신보험이나 투자신탁 상품의 제공과 함께 퇴직 후 자산운용에 관한 폭넓은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일본 하트포드생명의 레벤슨 사장은 퇴직자 층에는 남은 여생을 안심하며 보내고 싶은 니즈가 있으므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대응법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설명함.
- 변액종신보험은 운용결과에 따라 보험금액이나 해약환급금이 변동하며 하트포드생명은 「포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빠르면 여름경 상품을 제공할 계획임.
- 하트포드생명은 또한 투자신탁 상품 제공도 검토하고 있지만 판매시기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
- 한편, 퇴직 후 자산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하트포드생명은 전용 웹사이트 「Secondly Life의 달인의 재테크방법」을 5월 30일에 개설하였음.
- 동 사이트에서는 취득할 수 있는 연금 예상액의 계산이나 머니플랜의 작성 등, 시뮬레이션 기능을 확충하여 퇴직 후의 자산운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또한, 은행 등 방카슈랑스 제휴기관의 판매 담당자들에게 자산운용 컨설팅서비스 제공방법을 지도하는 전문 조직을 이번 달 1일자로 발족시켰음.

(FujiSankei Busines I, 4/22)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보험회사, 자산운용형 보험판매 인기몰이

- 최근 중국에서는 자본시장 발전과 일반인들의 투자의식이 제고되면서 투자연동형(변액보험), 만능형(유니버설) 등 자산운용형 보험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음.
- 보감위 통계에 따르면,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금년에도 자산운용형 보험상품의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2월 말 현재 투자연동형과 만능형을 합한 수입보험료 총액은 47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284%나 증가하였음.
- 2006년부터 중국 자본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대규모 자금이 주식과 펀드로 이동하게 되면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형 보험상품 역시 이러한 증권시장의 발전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같은 기간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전문가들은 당분간 인민폐 평가절상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개인 자산운용 수요 확대에 의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보험회사마다 인력과 자금을 대량 투입하여 자산운용형 보험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음.
- 그러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형 보험상품 설계, 정보기술, 판매관리인재, 업무감독 등 미숙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남방도시보 , 4/24)

□ 사상 최대 보험중개회사 M&A 성공

- 지난해 10월 미국 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판화보험그룹(泛華保險集團)이 산하 판중보험공사(方中保險公司)의 주도 하에 진행된 선전푸뽕공구[深圳普邦公(人+古)], 상하이텐형보험공구[上海天衡保險公(人+古)]의 합병 발표로 중국 보험중개회사 사상 최대의 합병이 성사되었음.
- 합병에 성공한 3사는 같은 날 금년 상반기 내에 보험공구그룹[保險公(人+古)集團]을 설립하고 오는 2010년까지 국내외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상기 언급된 ‘공구[公(人+古)]’란 우리나라의 언더라이팅과 손해사정을 합한 개념으로서 ‘보험당자사의 위탁을 받아 독립적으로 보험목적물에 대한 평가, 감식, 감정, 손해사정, 보험금산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기는 하지만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함.
- 판화보험 이사회장 우더화(吳德華)는, "우리는 1.3억 위안을 투자하여 보험공구그룹의 IT시스템 구축은 물론, 보험공구인력양성, 보험공구의 표준화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보험공구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공구원가를 감소시켜 보험회사의 운영비용을 낮추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다."고 전함.
- 중국 내 보험중개회사가 제공하는 ‘공구서비스’는 대부분 전통보험공구 업무에 해당하며, 약 100억 위안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시장규모는 전문회사의 출현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위험평가, 원스톱서비스 등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게 되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음.

(신식시보, 4/24)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4.11(금)	08.4.18(금)	08.4.25(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4.94	4.98	4.94	-0.04
	美 10년국채	4.03	3.47	3.74	3.87	0.13
	英 10년국채	4.51	4.61	4.71	4.78	0.07
	日 10년국채	1.51	1.38	1.40	1.61	0.21
주가	韓 KOSPI	1,897.13	1,779.71	1,771.90	1,824.68	2.98%
	韓 KOSDAQ	704.23	651.87	643.75	654.70	1.70%
	美 DJIA	13,264.82	12,325.42	12,849.36	12,891.86	0.33%
	美 Nasdaq	2,652.28	2,290.24	2,402.97	2,422.93	0.83%
	英 FTSE	6,456.90	5,895.50	6,056.50	6,091.40	0.58%
	獨 DAX	8,067.32	6,603.57	6,843.08	6,896.58	0.78%
	佛 CAC40	5,614.08	4,797.93	4,961.69	4,978.21	0.33%
	日 Nikkei225	15,307.78	13,323.73	13,476.45	13,863.47	2.87%
	中 상해종합	5,261.56	3,492.89	3,094.67	3,557.74	14.96%
	대만 가권	8,506.28	8,909.58	9,074.34	8,947.83	-1.39%
환율	홍콩항셍	27,812.65	24,667.79	24,197.78	25,516.78	5.45%
	원/달러	938.20	975.40	1,000.80	995.80	-5.00
	원/100엔	833.33	958.30	965.48	952.20	-13.28
	엔/달러	112.58	101.19	104.42	104.10	-0.32
	달러/유로	1.4722	1.5818	1.5727	1.5651	-0.0076
	위안/달러	7.3041	6.9920	6.9842	7.0100	0.0258